

늦은 출발, 따뜻한 약속...어느 봄날의 ‘특별한 결혼식’

광주서구청장애인복지관 ‘합동결혼식’

저소득장애인부부 6쌍 화촉 밝혀 수십년간 웨딩드레스에 ‘설렘가득’ 장애인화 예식, ‘반짝 박수’ 세레도 “서구민 나눔·연대가 기적 만들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많은 분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인생의 봄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24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위더스웨딩홀.

환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부부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입장하자, 하객들 사이로 따뜻한 박수와 눈물이 번졌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수십 년을 함께해온 이들은 마침내, 뜨거운 축복 속에서 평생의 약속을 맺었다.

이날 열린 ‘당신의 특별한 날, 드림(Dream) 웨딩’은 광주서구청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구 지역 고액기부자 모임 ‘서구아너스’가 후원한 행사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체적 제약으로 결혼식을 미뤄야 했던 6쌍의 저소득 장애인 부부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를 선물하자는 취지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부부들의 얼굴에는 소년·소녀처럼 수줍고도 설레는 미소가 가득했다.

정각장애가 있는 조미숙(63)씨는 “남편과 함께 살게 된 지 40년이 지났는데,



24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위더스웨딩홀에서 광주서구청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구 지역 고액기부자 모임 ‘서구아너스’가 후원한 ‘당신의 특별한 날, 드림(Dream) 웨딩’ 결혼식이 열렸다.

꿈에 그리던 웨딩드레스를 입게 돼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어제 리허설을 했는데 너무 설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앞으로 더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이날 결혼식을 계기로 13년 만에 딸과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된 중년의 남성도 있었다.

박찬웅(64)씨는 “딸이 너무 어린 나이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마찰이 생겨 교류가 끊겼는데, 최근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렇게 함께 축하할

수 있어 감격스럽다. 앞으로는 사위, 딸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박씨의 사위 김선화(46)씨는 “부부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간 형편이 어려웠는데 아내에게 드레스를 입혀줄 수 있게 돼 너무 행복하다”며 “결혼식을 계기로 장인께 손주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밝혔다.

행사는 장애인 친화형 예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위더스웨딩홀과 수어통역센터, 서구농아인쉼터가 협력하고, 전문 수어통역사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역

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완성했다.

서구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복지단체 관계자와 지인 등 100여명의 하객들로 예식장은 가득 찼고, 김이강 서구청장은 한 신부의 휠체어를 직접 밀어 행진을 돕는 등 혼주 역할을 자처해 눈길을 끌었다.

또 전통적인 주례 대신, 이대만 서구청 장애인복지관장이 ‘증인’으로 나서 부부십계명을 낭독해 의미를 더했다. 이 관장은 “지역사회의 연대가 부부들의 간절한 꿈

을 현실로 바꿨다”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오래도록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감동적인 행사에 신랑 신부뿐 아니라, 이들의 사연을 알고 있는 하객들까지 기쁨의 눈물로 새출발을 함께 축하했고, 행사 내내 ‘반짝이는 박수 소리’와 격려가 끊이지 않았다.

서영남(71)씨는 “형편이 어려워 미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이들을 위한 좋은 행사다. 지자체에서 이러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면 좋겠다”며 “늦게 결혼식을 올리게 된 만큼, 지인이 앞으로 더욱 단단히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본 식이 끝난 후에는 축하공연과 기념 촬영, 피로연이 이어지는 등 부부들의 행복한 시작을 응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100만원 상당의 혼수와 근교 결혼여행 지원도 함께 제공됐다.

이번 행사에 깊이 공감한 위더스웨딩홀은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예식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춰 2200만원에 제공했고, 이는 서구아너스 회원들의 기부로 전액 충당됐다. 위더스웨딩홀은 이 가운데서도 1000만원을 복지사업을 위해 기부하기로 해 온정을 보였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드림 웨딩은 ‘마음부자’ 서구민들의 나눔과 연대가 주민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구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갈 길 먼 광주전남 AI 디지털교과서 학습

학생 10명 중 2명 ‘회원 미가입’ 시민단체 “정책 중단·현황 공개를”

광주 소재 교육시민단체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정책의 성찰 및 원점 검토를 교육당국에게 촉구했다.

2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25년 AIDT 도입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디지털 원패스’에 가입해야 하지만 광주광역시 전체 대상 학생 10명 중 2명은 회원 미가입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5년 AIDT 구

독료로 56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지만 학생 6512명 중 1337명의 학생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지출된 예산이 사실상 버려지고 있다”며 “AIDT 선정 학교 중 일부 학급은 활용하지 않고 구독 신청만 하는 등 장식용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문제제기를 수렴하기보다 AIDT 선정 학교명, 학교별 가입률 등 단순 정보조차 비공개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소중한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어 생기는 피해는 주권자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사업 진행 태도를 꼬집었다.

교육부는 원패스 가입률의 저조로 이를 부풀리기 위해 교사가 학생 대신 이메일 인증 없이 ‘대리 가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단체는 “이는 전시하기에 급급한 일방행정으로 현장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며 “AIDT 활용 방안 부실, 인프라 부족 등 쓴소리는 외면한 채 일선 교사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졸속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광주시교육청 또한 정책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승우 기자

전남대 전신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100여명 서훈 추서 확인

단일 학교로는 ‘최대 규모’ 광복 80주년 선양사업 필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 전신 학교(前身學校) 출신으로 서훈에 추서된 이들이 100여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단일 학교 차원에서는 최대 규모다.

전남대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단 김재기 교수(정치외교학과 교수)연구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대 전신학교인 광주농업학교, 목포상업학교, 여수수산학교 출신 중에서 1919년 3·1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1940년대 학생독립운동 단체 결성 등으로 100여명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적으로 건국훈장 독립장, 애족장 등 서훈에 추서됐다고 24일 밝혔다.

광주농업학교는 1919년 3·1만세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최정기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등 49명이 서훈에 추서됐다.

1920년에 설립된 여수수산학교 출신으로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참여 등으로 오우홍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등 33명이 서훈에 추서됐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주도학교인 목포상업학교 서훈 추서자는 박종식 선생(건국포장) 등 16명에 달한다. 전남대 교수로 재직한 독립운동가도 의과대 조규찬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문리과대학 이을호 선생(건국포장) 등이 있다.

연구팀은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에 등록된 서훈에 추서된 인사들을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투옥이나 징계로 학교를 떠난 미서훈자는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할 경우 150명 이상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기 교수는 “단일 학교 규모로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가 서훈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방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수립에 기여한 전남대 전신학교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고증하고 선양 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지법, 30년간 해외도피 60대 징역 8개월 선고

1억원 고의 부도수표 발행 후 도주 공소시효 멈춘 상태에서 지병으로 귀국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지급한 뒤 부도를 내고 무려 30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60대가 한국에 돌아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5년 2월부터 4월까지 13차례에 걸쳐 1억1500만원 상당의 은행당좌계좌(수표)를 발행해 거래처 등지에 지급 제시하고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친척으로부터 사업체를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자금난에 처하자 이른바

‘공수표’만 남긴 채 중국으로 달아나 30년 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법 상 해외 도피 생활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A씨의 공소시효는 계속 유지됐다.

결국 A씨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진 귀국한 뒤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회생활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기업의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비채권자 일부와는 이미 변제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금융 거래에 혼란을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1억1500만원 중 2300만원은 수표 소지인과의 합의를 고려, 7850만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A씨의 범행은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 죄질이 가볍지 않다. 30년 전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는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회피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해 무려 30여 년간 도피한 점, 장시간 고통 받았을 수표 소지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뒤늦게 지난해 자수하며 범행을 인정한 점,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재정 상태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광주·전남, 이번 주말 포근한 날씨... “일교차 주의”

이번 주말 광주·전남 지역은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5일 광주·전남 지역은 찬 공기가 남하해 최저기온 6~10도, 최고기온 16~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토요일인 26일 최저기온 3~10도, 최고기온은 18~24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7일 역시 최저기온 6~12도, 최고기온 19~24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정준 기자